2021.11.14 참사랑교회 주일낮예배 메시지

다시 회복하여 로마복음화의 주역이 된 마가

-복음으로 여는 마가복음-

이사야 53:4-6, 마가복음 10:45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생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생령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6 가지 문제, 12 가지 문제 안에 있는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주시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다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237, 5 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천명, 소명, 사명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강단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게 하시며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를 발견하고 성취되어 교회를 살리며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은 AD.65 년에서 70 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마가복음은 로마의 네로황제가 일으킨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난 직후에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다. 네로황제는 로마 대화재사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로마의 화재를 일으킨 범인을 기독교인들이었다고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도 로마의 핍박 때문이었다. 마가는 로마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로 30 년이 지났다. 자연사하기도 하고 로마의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순교하기도 하였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을 때는 그분들에게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다. 마가다락방,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 전달될 수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 그 사람들이 죽은 경우들이 있었다. '우리가 죽더라도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과 복음, 역사를 기록해야겠구나.'하는 마음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도 로마에서 순교하였기 때문이다.

마가복음은 4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복음서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4 복음서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다. 나머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3 복음서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가복음서의 내용은 총 16 장으로 되어있어서 그 길이는 짧지만 4 복음서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복음서이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했다면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마가가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 표현한 이유는 마가복음을 통하여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주로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로마에는 전쟁에 패하여 포로로 끌려온 많은 노예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내려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전체 내용의 삼분의 일이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 사건 전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신 분이 그리스도로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분을 믿자는 것이다. 고난을 당할 때 천군천사 보내셔서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어린 양처럼 죽으심으로 대신 속죄하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기 약 700 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이사야서 53 장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마가복음서는 마가다락방 주인의 아들인 마가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마가 요한이 어떻게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아는 것은 마가복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1. 첫 번째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사도행전 12 장 12 절에 보면 마가의 이름을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로 보건대 '마가다락방'의 여주인의 이름은 '마리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의 이름이다. '로버트 김' 이런 식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 이름으로 보았을 때 마가 요한은 로마에 가서 유학을 했던 지 아니면 로마식의 고급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음을 알 수 있다. '마가'라는 이름의 뜻은 큰 망치이다. 이는 마가의 직업이나 전문전공이 대리석건축이나 토목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마가는 사도 바울을 안디옥교회로 데리고 온 바나바의 생질, 즉 조카였다. 골로새서 4 장 10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매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안디옥교회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울은 마가 요한을 안디옥으로 데려갔다. 예루살렘교회에서 부흥을 하니까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도망가게 된 것이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교회가 어렵게 되어 안디옥교회에서의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전한 것이다. 바나바가 가서 자기 조카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데려온 것이다. 사도행전 12 장 25 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후, 사도 바울이 제 1 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사도행전 13 장 5 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마가 요한은 1 차 전도여행 도중에 '버가'에서 사도 바울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선교여행 도중에 포기한 것이다. 사도행전 13 장 13 절을 보겠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후 2 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의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사도행전 15 장 37 절에서 41 절 말씀을 보겠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복음과 선교를 하는데 두 사람이 왜 싸웠을까?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초특급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마가는 그 당시에 초급, 중급의 신앙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의 신앙은 고급의 신앙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이들도 초특급 신앙으로 바뀐다.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마가가 세계복음화의 주역, 로마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된다. 마가 요한은 세월이 지난 후 다시 회복되어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 그 역할을 했던 핵심적인 인물이 베드로였다. '나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 지금도 얼마나 미안하고 창피한지 모르겠어' 팀사역을 잘한 것이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많은 말씀을 마가가 통역을 하면서 마가복음의 내용을 정리하게 된 것이다. 마가가 직접 쫓아다녔던 것은 아니었다. 마가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이다. 그리고 빌레몬서 1 장 24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다. 골로새서 4 장 10 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사역의 마지막 시기에 기록한 디모데후서에서 마가를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4 장 11 절 후반부를 보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통역자로 사역을 하였다.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5 장 13 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로마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있었던 것이다. 전승에 따르면 마가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로마

에서 순교한 후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알렉산드리아로 건너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말씀을 가르쳤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 영향 때문인지 후에 북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훌륭한 교부와 신학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난 후 로마는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되었다. 학자들은 로마복음화의 초석을 놓은 가장 중요한 인물이 마가였다고 보고 있다. 완전복음의 사람은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실수 후 자존심을 죽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모욕과 치욕을 당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존심 때문에 회개를 못하거나, 섬기지 못하는 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다.

2. 큰 두 번째에서는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하여 로마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 알아보겠다.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첫 번째 주된 목적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지 30년이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확실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로마의 불신자들이 읽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쓰여진 불신자전도를 위한 전도의 책으로 기록했던 것이다.

(1) 첫 번째에서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과 주님의 교훈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① 마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성취한 사건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 앞서 보내신 사자는 세례 요한을 의미한다. 세례 요한이 미리 온 사건도 말씀성취의 사건임을 증언하고 있다. 마가는 로마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절대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다.

②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들을 쫓아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 증언을 보면 대부분은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린 자가 고백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흑암세력을 꺾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③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통하여 인간들의 능력으로 절대불가능한 병들을 치유하는 모습을 증언하고 있다. 1장 40절에서 45절에 문둥병자를 고치셨다. 2장 1절에서 12절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3장 1절에서 6절 손마른 자를, 8장 22절에서 26절에 소경을 보게 하셨고, 10장 46절에서 52절에서도 소경 바디매오를 고쳐주셨다. 9장 16절에서 27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말 못하고 못 듣는 아이를 고쳐주셨다. 인류역사상 이러한 치유를 사실적으로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치유해 주셨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로마 엘리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역할이었다.

④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변론에서도 항상 승리하셨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에서도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너는 어떤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고 묻는다. 이때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묻는다. 하나님이 했다고 하면 핍박한 유대인들에게 '왜 너희들은 믿지 않느냐'할 것이고, 사람들에게로부터 라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다 따르지 않았겠는가. 그들은 자가당착에 빠져 대답하지 못한다. 이때 예수님도 말씀하신다. 마가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싸움에서 지신 적이 없고,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 설명을 해도 안 믿는다. 마가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있다.

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화요일에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13장 37절에서 말씀하신 교훈은 그 어떠한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가르치지 못한 교훈과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2) 두 번째는 마가 요한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말씀드리겠다.

①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복음이며,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한 것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 첫 번째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마가복음을 시작한 것이다. 소의 새끼는 소이고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영적인 구원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 어떤 존재도 인류의 죄를 씻어줄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단번의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실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사실의 중요성을 이해한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결론적인 메시지로 마가복음을 시작한 것이다.

② 두 번째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천국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된 왕의 직분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복음을 왜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마귀의 일은 개인과 가정, 부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을 때부터 흑암이 꺾이기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주신 참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복음과 전도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다.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으며, 그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마가 요한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평생을 헌신했던 것이다.

오늘도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이 붙잡을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와 현장에서 항상 섬기는 복음적인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하겠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영원한 비전은 237나라, 5천 종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마가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24시간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성령충만을 주셨다. 조금만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과 미래를 편집, 설계, 디자인해 주실 것이다.

5. Practice, 계속적인 실행이다. 3오늘과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란다.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4차 산업, 인공지능, 메타버스시대에도 예수생명, 예수능력 안에서 혹시 포기했더라도 다시 돌아온 마가 요한처럼 로마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이고 수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께서 만남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가처럼 끝까지 승리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로마복음화를 위하여 쓰임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